

유공, ISO 9001·9002 인증 획득

7개 사업부문 전공정 전제품 대상

(주)유공(대표 金恒德)은 지난해 11월 25일 영국의 로이드 선급협회 심사기관(LRQA: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으로부터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LRQA에서 파견된 3명의 심사관에 의해 실시된 본심사에서 유공은 석유·운할유·석유화학·아로마틱·용제·합성수지·파이프 제품 등 국내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분야에서 ISO 품질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유공의 품질인증 획득은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세계 최초로 NACCB(영국 국가인증기관), RVC(네덜란드), DAR(독일)에 동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 범위는 원유 구매에서부터 제조, 저장, 출하, 수송 등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기까지의 전과정이며, 특히 운할유 제품의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제품을 설계하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유공에라스톰머(주)(대표 李哲雨)도 국내 최초로 합성고무(EPDM) 제품에 대한 ISO 9002 인증을 받았다.

ISO 인증 획득으로 유공은 국내 최대의 에너지 화학업체로서 자사 생산 전 품목에 대해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 및 신뢰성을 더욱 인정받게 되었다.

인증을 획득한 사업장은 서울 본사, 울산컴플렉스의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합성수지공장, 운할유공장 등 전공

유공의 朴鍾律 부사장이 영국의 LRQA 본사의 Garlinge서로부터 ISO 9001 인증서를 전달받고 있다.



장(65개 생산시설), 전국의 11개 전저유소, 인천과 대구의 합성수지창고, 인천의 파이프 공장 등 생산·저장·출하관련 사업장은 물론 제품개발 및 기술서비스를 담당하는 대덕연구소, 울산연구소, 인천고분자연구소 등이다.

유공은 ISO 인증 획득 작업을 위해 전 사업분야가 동시에 참여, 160여개의 품질규정, 2천여개의 작업표준 등 품질문서를 제·개정하는 작업에 소요된 인 쇄용지만 하더라도 200만장이 넘는 방대한 작업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증작업을 주관한 유공의 趙圭郷 부사장은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ISO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공은 고객만족 경영을 위한 사내 품질경영시스템의 정립과 Globaligation에 대비한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ISO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부사장은 "ISO 인증 획득으로 상품의 품질,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

는 제품을 공급한다는 유공의 품질 방침을 고객에게 보장할 수 있게 되어 유공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감이 더 높아지고 회사의 이미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SO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 87년에 제정한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규격'에 의해 제3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품질시스템을 평가해 품질보증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식명칭은 '공급자 품질시스템에 대한 제3자 심사 및 등록(Third party assessment and registration of a supplier's quality system)'이다.

이러한 인증제도 수행을 위해 국가인정기관과 민간인증기관을 설치해 운영하게 되는데 인정기관이 인증기관을 승인·관리감독하고, 인증기관이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업무 수행한다. 인증심사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기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자격을 관리한다.

제일합섬 ISO 9002 인증획득

해외마케팅력 강화돼

제일합섬(대표 박흥기)이 폴리에스터 필름의 제조 및 설치 분야에서 세계적인 품질인증 기관인 영국 BSF-QA사로부터 ISO 9002 인증을 획득했다.

제일합섬은 이번에 ISO 9002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시스템의 정착을 통한 해외 마케팅력의 강화와 유럽 등 선진국의 유명업체들이 제품교역의 필수조건으로 내세우는 요구에 부응하게 되었다.

또한 내부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EC 등 선진국의 기술적 무역장벽과 향후 강제 인증분야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

럭키, ISO 9002 인증 획득

HDPE 제품 제조에 대해

럭키석유화학(대표 성재신)은 최근 영국의 품질 인증기관인 DNV-QA로부터 HDPE 제품의 제조에 대한 ISO 9002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럭키석유화학은 금년초부터 ISO 9002 인증획득을 위해 전 조직의 업무를 재평가, 체계화하는 등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왔다. 이번 ISO 9002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럭키, 식품시장 신규 참여

올해 5백억원 매출 예상

럭키(대표 최근선)가 식품사업에 신규 참여한다.

럭키는 기존 조미료제품과는 달리 MSG(글루타민산 나트륨)가 들어가지 않은 천연조미료와 즉석국 액체양념장 양념분말 등의 제품을 '맛그린'이란 상표로 지난해말부터 시판하면서 식품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럭키는 이를 위해 최근 1천5백평 4층 규모의 식품공장을 완공했다.

우선 청주 공장에서 연간 7천5백톤의 천연 조미료를 생산하고 즉석국 액체양념장, 분말양념 등은 기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OEM방식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럭키는 식품사업을 통해 올해에 5백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고 95년에는 8백50억원, 오는 2천년에는 3천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럭키, 폐플라스틱 재활용 본격 참여

95년부터 재활용 전담연구팀 운영

럭키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스티렌 수지 분야에서 리사이클용 수지를 개발하는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나선다.

럭키는 플라스틱 생산에서부터 판매, 유통,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요인을 없애는 것을 제도화한다는 경영방침 실천을 위해 오는 95년부터 폐플라스틱 재활용사업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럭키는 이를 위해 본사 합성수지부문에 폐플라스틱 리사이클팀과 대덕 중앙연구소 안에 사업연구 전담 프로젝트

팀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럭키는 또 플라스틱 주요 수요처인 가전·OA(사무자동화) 분야와 협조체제를 다지기 위해 금성사 등 관련 계열사들과 폐플라스틱 수지공동위원회도 설립, 운영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직과 전략을 바탕으로 럭키는 98년부터 플라스틱 성형이나 가공시 발생하는 균질 폐플라스틱을 활용, 재생 펠릿을 생산할 계획이다.

럭키는 또 일반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에 포함된 플라스틱 혼합물 등을 녹여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완공, 98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합성수지 수출 활기

작년대비 17.2% 증가

올들어 합성수지 수출이 계속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가 발표한 '석유화학 제품 수급동향'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합성수지 수출은 1백83만4천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7.2% 증가했다.

이처럼 합성수지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의 수요가 늘고 있고 일본 및 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PP가 62만9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로 가장 높은 신장세를 기록했다.

이밖에 HDPE가 15.4% 늘어난 49만4천톤, LDPE가 13.8% 증가한 26만3천톤이며 PS는 20만9천톤으로 17.4% 늘어났다.

또 ABS는 11.5% 증가한 12만6천톤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PVC는 국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출이 둔화, 11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합성수지 외에 합성고무는 10월 말 현재 수출이 8만2천톤으로 19.6% 증가한 반면 합성원료는 10만4천톤으로 26% 감소했다.

합성수지 생산 자율 감축

유화업계, 경영난 타개책

유공, 현대석유화학, 대한유화 등 석유화학 업계가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폴리올레핀) 생산을 자율적으로 감축한다.

이는 석유화학 사장단의 기초유분(올레핀) 5% 감산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난 타개를 위해 업계가 자구 노력이 나섰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업계에 따르면 현대석유화학은 내년 HDPE, LDPE 생산을 12% 줄이기로 했다.

이로 인해 현대석유화학의 내년도 폴리올레핀 생산은 올해의 55만톤에 비해 6~7%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양화학도 기초유분 5% 감산의 후속 조치로 폴리올레핀의 내년 생산량을 5%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양의 생산량은 LLDPE가 9만5천톤에서 9만1천톤으로, LDPE가 27만톤에서 25만7천톤으로, HDPE가 11만톤에서 10만5천톤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유공은 HDPE, LLDPE병산공장(20만톤 규모)과 PP(15만톤 규모) 공장의 생산량을 5%씩 감축하기로 했다.

삼성종합화학은 업계의 감산 움직임에 보조를 같이 한다는 방침에 따라 5% 감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폐플라스틱 재생업계 존폐위기

신재가격 급락으로 경쟁안돼

폐플라스틱을 재생하는 중소플라스틱 재생업계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유화업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신재의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재생재의 값보다 더 싸게 형성되는 등 대기업인 유화업체들과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

구랍 21일 재생플라스틱조합(이사장 박재림)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신재원료 가격이 급락한데다 정부의 환경시책이 강화되면서 재생업체들이 잇따라 폐쇄 또는 이전 명령을 받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플라스틱조합 산하 업체들의 수도 89년 2백30개에서 90년 1백97, 91년 1백75개, 92년 1백51개사, 93년에는 1백38개 업체로 줄었다.

현재 국내에서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1백여만톤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12만톤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다.

유화제품 인도 수출 타격

HDPE등 덤핑제소 조짐

중국, 홍콩에 이어 3번째로 큰 한국의 합성수지 수출시장인 인도가 한국산 HDPE, PP를 반덤핑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석유화학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인도 석유화학공업협회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에 한국산 HDPE, PP의 대 인도 및 제3국 수출가 및 국내판매 가능 여부 반덤핑 제소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협조 요청했다.

인도가 한국산 HDPE, PP에 대해 반덤핑 제소할 경우 한국업체들은 내수 공급과잉 물량을 수출로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 4천톤 규모로 인도가 가장 많은 HDPE, PP를 수출하는 대한유화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합성수지업계는 인도의 반덤핑 제소 움직임에 대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SKC, 미 마이크로필름공장 인수

NAFTA에 대비 현지 거점 확보

(주)SKC(대표 안시환)는 구랍 9일 세계 최대의 마이크로필름 생산회사인 미국 아나콤사의 씨니베일공장을 인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SKC는 아나콤사에 88년 9월부터 마이크로필름의 기초가 되는 폴리에스터 필름을 공급해 왔는데 이번에 미주경영 기획실과 공동 노력으로 2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씨니베일공장 인수에 성공해 미국 현지에서 마이크로필름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연간 5천만달러(약 4백50



▲SKC는 미국 아나콤사의 마이크로필름공장을 인수, 구랍 9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억원)의 매출증대 효과와 함께 1월부터 발효되는 NAFTA(북미자유협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가동되는 씨니베일 공장은 연간 6천톤의 마이크로필름 생산능력을 가진 공장으로 구랍 9일 SKC 안시환 사장과 아나콤사의 페레로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인수비용은 운전자금을 포함하여 총 1천2백50만달러 규모로 현지 생산 및 관리인력 1백90명 전원을 인수했다.

SKC는 이미 중국 복건성에 연산 1천8백만개의 생산설비를 가진 비디오테이프 조립공장과 미국 뉴저지에 연산 2천4백톤 규모의 알루미늄 코팅 필름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마이크로필름 사업부분을 인수함으로써 자기기록 매체 및 고분자 신소재분야에 3개의 대규모 해외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제지사, 설비기술 개발 나서

상공자원부·기술연구원 공동으로

제지업체들이 설비 국산화 및 관련 기술개발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최근 상공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지업체들은 그동안 주요 제지관련 설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자체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상공자원부와 생산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지설비 공동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제지업체의 설비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98년까지 공업기반 기술개발자금 공업발전기금등에서 5백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쇄용지 재고 감소로 습통 터

수출 등 늘어, 두달새 18%나

과잉재고와 가격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인쇄용지 업체들이 지난해말 내수와 중국등지에 대한 수출이 활발해져 경영압박에서 벗어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쇄용지 생산6사의 인쇄용지 재고량은 92년말 9만8천톤에서 지난해 8월말 13만1백톤까지 증설했으나 10월말 10만7천톤으로 두달만에 18%가 줄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에도 수출의 증가와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인쇄용지 재고량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골판지업계, 접착제용 전분 구득난

가격인상·물량감소로 조업중단도

골판지업계가 접착제로 쓰이는 전분의 가격인상 및 구득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판지업계는 접착제용 옥수수전분 생산업체들이 kg당 가격을 25%선 인상하고 공급물량도 대폭 줄임에 따라 접착제 구득난으로 인한 수출용골판지 상자제조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국내 전분생산 업체들이 지난해 9월15일부터 수입옥수수 가격상승 및 수입물량 감소를 이유로 전분가격을 kg당 2백~2백5원에서, 2백50~2백60원선으로 올리면서 공급물량도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비축 접착전분이 없는 골판지 업체들은 물량 확보에 큰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일부 지방업체들은 조업중단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신문용지시장 본격 침어

신호, 20만톤 공장건설

신호그룹이 신문용지 시장에 본격 참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장건설에 들어갔다.

신호그룹 온양팔프(주)는 충북 청원에 연산 20만톤규모의 신문용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모두 1천8백억원의 투자비를 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양팔프는 이미 지난해 초 핀란드 발멧과 일산 6백톤, 분당 1천3백m 생산능력의 초지기(제지기) 발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양팔프는 올해부터 실질적인 공장건설에 들어가 오는 95년 10월부터 신문용지의 본격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계성, 임원급 인사단행

경영체제 재정비 일환

계성제지가 책임경영제 도입에 발맞춰 임원급 1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계성제지의 이번 인사에서는 오정환 전무가 계성제지, 남한제지, 품만제지 등 제지계열 3사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임명되었으며, 전영찬·윤복노 전무도 각각 기획관리(연구소포함) 및 판매담당 부사장으로 발탁됐다.

공장관리담당 부사장에는 윤세호 전무가 승진 임명됐다.

계성제지는 급변하는 경영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영체제 재정비에 이번 인사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무: 김영윤, 최홍

▲이사: 최건, 이정길, 유창석, 신지현, 최창량, 이덕영

▲이사대우: 이석창, 길이정, 장석희, 최은수

인쇄용지사업 다시 추진

동해, 95년 9월 상업생산

표백화학펄프 생산업체인 동해펄프가 경영난으로 주춤했던 인쇄용지사업 참여를 재추진키로 했다.

동해펄프에 따르면 펄프가격 하락 등으로 미뤄왔던 인쇄용지사업 참여를 위해 지난해 말 초저기 발주를 마치고 오는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95년 8월까지 공사를 끝낸후 95년 9월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가기로 확정했다.

공장규모는 당초계획(연산 23만톤)을 축소한 연산 19만톤으로 확정하고 평량 40~1백20g/m², 지폭 5천1백mm, 분당 속도 1천2백m의 초저기를 설치키로 했다.

사업비는 모두 9백90억원으로 30%는 자체자금으로, 70%는 시설차입으로 조달하게 된다.

생산지종은 백상지와 아트원지로 백상지의 경우 주주사들을 통한 위탁판매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회사관계자는 “국내 펄프가격이 최근 오름세로 돌아서 내년 1/4분기에는 톤당 4백5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돼 제지 펄프 일관화사업을 재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해펄프는 지난 92년말 인쇄용지시장에 참여키로 결정, 당초 94년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인쇄용지시장 참여를 둘러싼 주주사간의 이견과 국제펄프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난으로 사업을 계속 미루어왔다.

95년에는 인쇄용지시장의 공급과잉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돼 더 이상 사업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하이델버그헤리스 운전기 설명회

한국비타이, M-600 등 4기종

한국비타이이는 운전기세미나 및 새로 개발된 하이델버그헤리스 운전기 설명회를 가졌다.

구랍 7일 선보인 M-600 운전기는 인피드 인쇄유니트 냉각물 및 홀더가 각각 분리된 구동모터에 의해 구동되며 전화모뎀에 의한 원격진단이 가능하다.

새로 개발된 하이델버그헤리스 선데이 프레스 M-3000은 세계 최초로 틈이 없는 원통형 블랭킷을 사용하여 제반 인쇄결함의 근원인 불안정성을 제거한 운전기로 원통형 블랭킷의 교환에 필요한 시간이 20초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또 M-4000 운전기는 교과서에 많이 쓰이는 국판(A5)크기의 긴결집지물 및 국배판(A4) 짧은결 생산기종으로 실린더의 인라인 스택 배열로 줄무늬 발생가능성을 제거시켰다.

이와 함께 유화타입과 필름타입의 이중 습수장치를 사용했으며 이중 잉킹장치가 채택됐다.

M-850C 운전기는 기존의 16페이지 대신 32페이지 접지물물 생산해 제본과 후가공 작업에서 인건비가 대폭 절감된다.

더욱이 2개의 칼집지 장치를 가진 모델 TCF-70 홀더로 부터의 콜렉트 생산일 경우 32페이지 접지물 1줄, 스트레이트 생산일 경우 16페이지 접지물이 2줄로 배달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능성음료 시장 불붙어

롯데칠성·해태음료 참여

기능성음료 시장에 롯데칠성·해태음료 등 음료메이커들이 본격 참여할 준비

를 서두르고 있다.

구랍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음료업체인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내년 초부터 기능성음료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롯데칠성은 소병포장용기 2천만개의 발주를 이미 끝낸 상태이며, 해태음료 역시 부평공장 내에 소병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중이다.

음료전문 업체가 이처럼 경쟁적으로 기능성음료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이 품목이 2~3년전부터 매년 두 배 이상의 매출성장을 기록, 음료업계 다크호스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PE봉투 단체표준

공진청서 제정승인

프라스틱조합(이사장 이국노)은 구랍 17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PE)봉투의 단체표준제정 승인을 받았다.

환경처의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시행지침의 재료 및 치수에 맞춰 이번에 제정된 단체표준이 승인됨에 따라 쓰레기수거용 PE봉투제조업체들은 프라스틱조합이 제정한 한국플라ستيك표준에 따라 PE봉투를 제작,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할 수 있게 됐다.

해태그룹, 사내 물류교육 가져

현장적용 물류사고 배양

물류관리협의회는 구랍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해태그룹 사내교육을 실시했다.

92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사내교육은 좀더 새로운 로지스틱스를

선보였으며 국제화 시대의 기업실정에 맞는 물류교육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고 양시켜 현장에 적용 가능한 물류적 사고 를 배양시켰다.

미원유화, 스티렌업계 최초 1억불탑 수상
국제화전략 마케팅 강화

미원그룹 계열의 미원유화(대표 이덕 립)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전개해온 국제화 전략에서 그 결실을 맺었다.

미원유화는 지난해 11월 30일 개최된 무역의 날에서 스티렌계 업체로는 국내 최초로 수출 1억불탑과 국무총리상을 수 상했다.

국제화전략의 일환으로 마케팅 능력을 강화해온 미원유화는 지난해 7월에 중국 시노펙(SINOPEC)사에 국내 석유화학 플랜트 수출사상 최대규모인 4백50만불 의 ABS 제조기술을 수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여왔다.

품질관리대상, 장영실상, 연구개발상 등을 수상한 바 있는 미원유화는 이러한 활동 결과로 해외시장에서의 지명도가 높아졌고, 신규 바이어에 의한 주문량도 27% 증가했다.

또한 동업계의 스티렌계 제품의 평균 수출증가를 11%를 훨씬 초과하는 20% 의 판매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29일 개최된 임시주

총에서 회사명을 한남화학(주)에서 (주) 미원유화로 변경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그룹의 CI를 통일시켜 해외시장에서 보다 잘 알려진 미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함 으로서 회사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 한 것이다.

미원유화, R&D체계 강화
이천에 연구소 설립

(주)미원유화는 개방화 시대에 대 비 30여명의 기초 연구인력을 해외로 부터 영입하는 등 연구개발 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원그룹측은 경기도 이천군 부발 읍에 5천평 규모의 중앙연구소를 설 립, 내년 하반기에 미원유화가 (주) 미원과 함께 입주하게 된다. 회사측 은 이에 따라 그간 장기 해외연수를 보냈던 석·박사급 20여명의 인력을 내년중 불러들여 신규 연구인력을 96 년까지 현재 70여명의 2배 이상 규모 로 늘릴 계획이다.

미원유화는 단기적으로 자사 경쟁 력이 강한 PS계통 제품의 국내외 시 장을 굳게 지키는 한편 장기적으로 고내열성 수지, ABS비닐수지 등 고 부가·고기능 유화제품 비중을 높여가 기로 했다.

미원유화, 임원인사 단행

미원그룹(회장 임창욱)의 계열사 인 (주)미원유화는 구랍 24일 인사이 동을 단행했다.

(주)미원유화의 인사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상무 : 김상선, 김정호
- ▲이사 : 임중부
- ▲이사대우 : 손태현, 김기선, 이덕재
- ▲전보 : 이사 최효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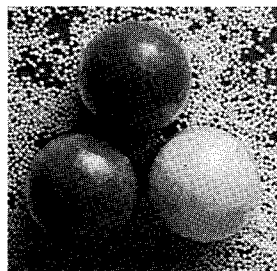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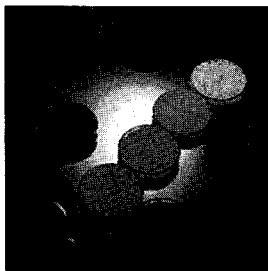
미원유화, 고성능 플라스틱 개발
연 1백억원 수입대체 효과 기대

(주)미원유화는 국내 처음으로 엔 지니어링 플라스틱 복합재료중 고부 가가치 제품인 ABS/NYLON ALLOY 복합수지를 개발, 본격 시 판에 나섰다.

이 수지는 ABS와 나일론 수지를 특수가공(폴리마 알로이)하는 기술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기존 나일론 수지의 최대 단점중 하나인 수축률을 제거하였으며, ▲상온에서 충격값이 선진국 ABS/NYLON ALLOY 수 지의 10배 이상이고, ▲저하중시 내 열 특성이 1백2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부터 'HAN 864'란 상품명으 로 판매될 이 수지는 ABS 수지의 성 형가공성, 치수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결정성 수지인 나일론의 열안정성, 내마모성, 내화학 약품성을 적절히 조화시킨 고성능성 플라스틱이다.

이 수지 개발로 그동안 전량 수입 에 의존하던 1백억원 규모의 수입대 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원유화가 스티렌계 업계 최초로 수출 1억불탑을 수상했다. 사진은 미원유화의 스티렌계수지

제관시장 내수침체로 성장둔화

중국시장 진출등 수출은 5% 증가

지난해 제관시장은 내수경기의 부진과 여름성수기 냉해, 금융실명제 실시의 여파로 내수시장은 감소했으나 중국시장진출 등에 힘입어 수출물량은 5% 정도 증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내수시장은 전체시장의 감소 속에 스포츠드링크캔과 캔커피캔의 성장이 두드러졌고, 92년에 선보인 차음료의 성장으로 내수부진을 만회했다.

그러나 탄산음료관과 통조림관이 전년대비 각각 4.5%, 12%가 줄어들어 경기여파속에 기존제품이 신제품에 밀리는 현상을 나타냈다.

제관사들은 그동안 캔만을 수출하던 형태에서 올해는 뚜껑 인쇄석판 등의 수출형태로 변질할 예정이며 제관설비 수출의 움직임도 보여 현지에서 제조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내수시장도 스포츠드링크캔, 커피캔, 차종류캔과 함께 진로의 맥주시장 진출로 맥주캔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돼 제관시장은 10% 정도의 성장이 기대된다.

반면 91년 이후 제관사들의 과다한 설비증설로 공급이 수요를 크게 앞질러 설비 가동율이 급격히 하락돼 치열한 판매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제관사들은 캔리사이클링과 철강 등 관련 소재회사와 음료회사, 제관사들이 참여하는 협동체를 구성,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일 전망이다.

신문용지 내년 공급과잉 예상

업체 잇단 증설, 물량 남아돌듯

그동안 수급균형을 이뤄왔던 신문용지, 백판지 등이 올해 공급과잉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쇄용지의 공급과잉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어서 제지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지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문용지 국내 수요는 93년도보다 5.3% 늘어난 92만7천톤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급은 국내생산 99만5천톤(6.8%증가), 수입 9만6천톤 등을 합해 모두 1백9만1천톤에 이를 것으로 보여 연간 약16만톤의 신문용지가 남아돌 전망이다.

이는 한솔제지의 전주6호기가 올해 17만톤 정도의 신문용지를 생산, 그만큼 국내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쇄용지의 경우 올해 국내수요는 93년도보다 9.2% 늘어난 1백26만3천톤으로 추정되는 반면 공급은 93년도보다 11.9% 늘어난 1백52만톤에 이르러 연간 28만톤 가량이 남아돌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인쇄용지 공급이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동신제지(3만9천톤), 한국제지(3만9천톤), 동국제지(3만8천톤), 흥원제지(2만1천톤), 한솔제지(7만8천톤) 등의 증설물량이 대량으로 출하되기 때문이다.

백판지는 올해 신풍제지가 연산 11만톤 규모의 초지기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어서 공급과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한제당, 그룹조직개편

임원급 대규모 인사이동

대한제당은 구립 16일 회장종합조정실을 그룹종합조정실로 확대 개편, 유성삼 실장을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주)해마로 대표이사 사장에 신쾌승 전 우성사료 부사장을, 대진유니텍 대표이사 상무에 김기문 대한제당 부사장을, 동진개발 대표이사에 박동환 대한제당 이사대우를 각각 선임하는 등 임원진 15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전무

• 대한제당 : 신동화, 이무성

▲상무

• 대한제당 : 이채수, 윤희석,

이은구

• 안진건설 : 박현곤

• (주)해마로 : 장덕진, 신동욱

▲이사

• 대한제당 : 김진경

• 안진건설 : 차규삼

• (주)해마로 : 권오승

대한은박지 인사

대한은박지공업(주)(대표이사 이회자)는 구립 28일 김석주 상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천세, 이충구 대표 체제로

천세산업(주)의 이충구 부사장이 이달 1일자로 대표이사로 승진, 취임했다.

한편 천세산업의 김성모 전 대표이사는 회장직을 맡거나 추진중인 계열사가 설립되면 계열사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3D제조 업종도 병역특례 혜택
올해부터 6백82개 전공목 적용

올해부터 병역특례 지정업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산업기능요원의 지원자격도 크게 완화된다.

병무청은 구랍 18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병역특례지정업체가 대폭 늘어나 제조업의 경우 철광·기계 등 10개업종만 대상으로 했던 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를 앞으로는 3D 제조업종까지 포함, 사실상 전제조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거 90개 기술자격 종목에 한정돼 있던 산업기능요원 지원 자격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 및 기능계 전공목(6백82개 종목, 서비사업 제외)으로 확대해 한 가지 이상의 자격증만 취득하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대해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요원을 3인 이상(중견 5인 이상)만 확보하면 연구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자연계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중견 석사학위 이상)도 보충역에 한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학력에 따른 기술자격의 등급기준은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는 종전의 기사 1급 이상에서 기사 2급 이상으로 ▲대학 3~4학년 휴학, 중퇴자는 기능사 1급 이상에서 기능사 이상으로 자격기준 등급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농어민 후계자를 비롯해 위탁영농회사의 농업기계 운전요원, 농업기계 사후 봉사업 종사자 등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되 농한기에는 농외소득사업 등에 종사

할 수 있게 했다.

크라프트지 용지 용도 다양화 계획
업계, 쇼핑백·포장재로 용도 개발

크라프트용지업체는 현재 시멘트, 곡물, 설탕류 등의 부대로 쓰이는 크라프트용지의 용도를 각종 비닐류나 코팅백상지를 사용하고 있는 쇼핑백 등으로 용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화점이나 시장, 슈퍼마켓 등에서 포장재로 쓰는 비닐봉지 대신 크라프트 종이봉지의 활용을 추진키로 했다.

국내 최대 크라프트지 생산업체인 쌍용제지(대표 정선거)는 이제까지 각종 부대류와 종이테이프, 철판간지, 샌드페이퍼 제작업체에 크라프트지를 공급했으나 지난해 초부터가 신세계 등 유통업체에 크라프트지 포장백을 공급중이다.

상품포장재로 백상지를 코팅한 종이봉투나 비닐봉투를 대신 지난해 크라프트지만으로 만든 종이봉투를 사용하기 시작한 업체는 신세계 이외에 LG유통, 르까프, 아이다스, 선경, 카스피 등 10업체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포장재로 쓰이는 코팅백상지보다 크라프트원지로 만든 포장용 종이봉투가 개당 20원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우위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라프트지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자연상태에 방치되더라도 바로 분해되면서 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아기연, 해외시장 적극 진출
동남아·중남미 등에 수출 확대

각종 포장기기를 제조 공급하고 있는 (주)홍아기연(대표이사 강대회)이 해외시장 진출에 나섰다.

홍아기연은 제약포장기기의 자동화를 위해 제품의 다양화, 품질의 고급화, 첨단기기의 국산화에 앞장서 지난 81년에 국내 업계로는 처음으로 P.T.P 포장기기를 개발, 제약기기의 선진국인 일본에 수출하기도 했다.

'신용과 품질을 우선하는'을 회사의 모토로 삼고 있는 이 회사는 전체 매출액의 20%를 연구개발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양질의 제품생산을 위해 매년 2~3명의 기술요원을 독일, 이태리 등 기술선진국에 보내 연수를 시켜왔다.

홍아는 최근 일본,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와 중남미까지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약업계·식품업계·전자·문구·화학·생활용품 등 전 분야에 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제약 및 제과사에 필수적인 PTP 자동포장기인 'MIN-ISTAR-V, VII', 국내 최초 개발중인 앰플 및 VIAL 자동포장기 'MIN-ISTAR-AV' 등을 수출, 호평을 받아왔다.

더욱 카드블리스터포장기계 'MIN-ISTAR-GVII'는 조선무약·국제약품에 납품했고 화장품, 면도기 등 일반 생활용품 및 잡화포장에 카드방식을 도입한 혁신적인 기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성형·충전·접착 등이 완전 자동으로 이루어져 원자재 및 인건비를 절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